

‘공원 일몰제’ 2단계 25곳 중 15곳 매입·10곳은 민간개발

## 개발면적 대폭 축소 공공성 강화

광주시 1629억원 투입 토지 매입 ... 개발면적 30%→10%로

민관거버넌스 공원 개발 새 방향 열어 시민과의 약속 지켰다

광주시가 도시공원 보전을 위한 재정 투입 규모를 대폭 늘리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개발 면적을 크게 축소한다. 공공기관의 참여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시,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거버넌스를 운영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새로

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종합계획’의 충실한 이행, 사업자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기준 마련, 공원 보전 및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실행 방안 집행 등이 과제로 남았다. 시는 민선 7기에도 민관거버넌스를 계속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관련기사 3면> 시는 2일 민관거버넌스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재정투입사업으로 15개 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10개 공원을 추진하는 등 총 25개 공원에 대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시가 지난해 8월 말 전국 최초로 시민사회단체, 대학교수, 시의회, 관계 공무원들 민관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하고, 모두 18차례 회의와 현장 확인,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이뤄낸 소통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는 중앙·일곡·중외·송정·신용(운암)·운암산 등 6개 공원이며, 오는 4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계획을 심의하고 결과를 반영해 시 홈페이지에 사업제안안내를 공고할 예정이다.

재정은 민관거버넌스의 의견을 전면 수용해 2016년에 수립한 500억원보다 1129억원을 증액한 1629억원이 투입되며, 2022년까지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1단계에서 비공원시설 면적을 30% 미만으로 제한을 받았으나 2단계에서는 비공원시설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국한하고 비공원시설 면적을 평균 10% 미만으로 대폭 축소해 경관 훼손을 줄이면서 녹지 및 공원면적은 최대한 지킬 수 있게 된다. 다수 제안방식의 책임성 부분은 1단계보다 강화해 제안자는 1개 공원만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가 가능하고, 중앙공원은 당초 3개 지구에서 2개 지구로 분리해 제안받는다.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부 평가항목 점수는 국토교통부 지침을 반영하고 비계약 점수와 시민심사단 평가 점수를 확대하며 점수 배분 간격을 조정해 변별력을 높일 방침이다.

정중제 민관거버넌스 위원장(행정부시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재정투자 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공원일몰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민관 거버넌스와 공원일몰제의 현안문제 등을 논의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멸치가 맛있어지는 시간 2일 고충군 금산면 오천항의 멸치건조장에서 어민들이 갓 잡아올린 멸치를 끓는 물에 데친 후 재반에 옮겨 담고 있다. 최근 고충에서는 은빛 멸치잡이가 한창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2단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냉전 종지부 찍는다

靑, 남·북·미 3국 종전선언 뒤

중국 포함 4국 평화협정 서명

청와대가 남북미 3개국의 종전선언을 거친 이후, 중국을 포함한 4개국이 평화협정에 서명하는 2단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성을 밝히 주목된다.

<관련기사 2·8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일 기자회견과 만

나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대립 관계를 해소한다는 정치적 선언으로, 중국이 주체가 될 필요가 있는지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전쟁의 한 당사자인 중국이 남한과는 물론 미국과도 수교한 상태여서 적대·대립 관계가 이미 해소됐다는 것이다. 다만 한반도 대립 구도를 깨뜨리고 새 질서를 구축하는 평화협정 체결에는 중국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

이다.

남북 대치 현실에서 전쟁을 끝내자는 정치 이벤트인 종전선언은 군사 대치 당사자인 남북미가 참여하면 되지만, 1953년 북한·중국·유엔군이 체결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당시 체결 당사국인 중국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이르면 6~7월에는 모

든 절차가 끝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향후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대를 만들고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 간의 이견을 최대한 좁힌 뒤, 남북미 3자가 종전선언에 대한 최종 담판을 짓고 중국을 포함한 4자가 이를 담보하는 법적 틀인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이다.

한편, 2015년 이후 중단됐던 한중일 정상회의가 오는 9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한·중·일 3개국이 북한의 비핵화 요구를 담은 공동선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980년 5월 16일 도청 분수대에서 열린 민주화대성회 집회.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시민 38년 전 그날처럼

## 18일 분수대 둘러싸고 민주화대성회 재현한다

제38주년 5·18 기념행사

광주시민들이 5월18일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에 모여 38년 전 뜨거웠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재현한다.

<관련 기사 17면>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상임위원장 위인백·행사위)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제38주년 5·18민중항쟁 기념행사’ 추진 세부 계획 등을 발표했다. 올해 행사는 슬로건 ‘보아라 오월의 진실, 불어라 평화의 바람’에 맞춰 10개 분야 100여개 행사가 펼쳐진다.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진행되는 기념식 외에 특별한 행사가 없었던 5월18일 당일에도 처음으로 행사가 마련된다. 1980년 5월 14~16일 열렸던 민족민주화대성회를 재현한 행사로, 이날 오후 3~6시 5·18민주광장에서 ‘시민 직접 민주제 어떻게 만들어갈까?’를 주제로 ‘금남로 공론화회의’가 열린다. 연령·성별·직업군을 고려해 무작위로 뽑은 시민 200명과 현장에서 선정한 100명이 참여한다. 그룹별로 주민발의조제, 시민예산제, 원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 이어 오후 7시30분까지는 80년 5월 해방광주를 표현한 오월대동판국(가칭)이 진행되고 상무관에서는 미술작품을 활용한 ‘상무관프로젝트’(18~27일)가 기획됐다.

17일 오후 7시~밤 10시 금남로에서 열리는 전야제에서는 표정두·이한열 열사의 유족이 민주화에 대해 증언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전야제는 ‘모두의 오월’ ‘보아라 오월의 진실’ ‘불어라 평화의 바람’ 등 3부로 나뉘며 시민 200명이 예술가들과 함께 노래·춤·퍼포먼스를 펼친다. 현장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시민공모사업 중 인기를 끌었던 ‘오월우체통’은 본행사에 편입됐다. 5월 9~31일 금남로, 각 시립도서관 등에 설치된 오월우체통에 소망엽서를 넣으면 1년 뒤 받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밖에 독일 베를린, 서울, 대구, 대전, 부산, 강원도 등 국내외와 광주시 5개 지구도 음악공연, 강연, 사진전 등을 열며 기념행사에 동참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일보

영암사고 할머니들 아픈 사연 ▶6면  
그림편지-슬로베니아 김효삼 ▶18면  
KIA 한승혁 4선발 굳히기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가톨릭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HNT 하나투어**

우리여행은 우리만대로

## 하나투어 단체맞춤여행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업계최초!! 단체맞춤여행 인증제 시행!**

인증서는 고객과 하나투어의 약속입니다. '맞춤여행 인증제'로 여행의 신뢰를 더하세요.

- 안전성** 국내 유일 전세계 23개 네트워크로 안전한 여행을 제공합니다.
- 신뢰성** 인증서로 계약사항을 명확하게 이행할 것을 보장합니다.
- 전문성** 하나투어만의 노하우로 정확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까운 하나투어 공식인증 예약센터 방문 또는 1577-1233 으로 연락주세요.